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보성에서 제1차 임시회 개최

### 9개 지자체 시장·군수·부군수 참여...김철우 보성군수 회장 "상호 경제 협력·다양한 연계 사업 통해 상생 발전 선도할 것"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김철우)는 11일 보성군 북재흥에서 2022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는 남해안남중권에 소속된 보성군, 여주시, 진주시, 순천시, 사천시, 광양시, 남해군, 고흥군, 하동군 등 9개 지자체 시장군수 및 부군수가 참여했다.

보성군은 제7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회장 도시로 선출돼 김철우 보성군수가 회장직을 맡았으며, 8월 1일부터 보성군 다향체육

관에 사무국을 이전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긴급 안건으로 중부지방 호우피해 성금 지원에 대해 논의 했으며, 실무 검토를 통해 성금액과 대상을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경전선 고속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순천시 도시를 통과하는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는 8월 26일부터 남해군에서 열리는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관광 행사와 시군 지역발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협의회장인 김철우 보성군수는 "남해안남중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시·군간 상호 경제 협력과 다양한 연계 사업을 통해 남해안남중권의 상생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전남 보성군, 여주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과 경남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등 9개 시·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남해안 발전 거점 형성과 영호남의 상호 교류를 위해 2011년 5월 창립했다.

보성=김덕순기자



## 순천시 주민자치협의회 "경전선 우회하라"...강력 규탄

### 기존 6회서 하루 40여 차례 도심 통과시 극심한 교통체증·소음·안전사고 위험 직면



순천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이흥타)는 최근 월례회의에서 순천시 도시를 관통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강력 규탄했다.

협의회는 "현재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시속 250km의 고속철이 기존 6회에서 하루 40여 차례 순천 도시를 관통하게 되는 노선"으로

"이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순천시민은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 안전사고의 위험을 매일같이 직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순천은 전 지역이 생활권 보전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지역인데, 광양·나주·진주 지역은 전부 우회하면서 우리 순천시민 의견조차 묻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반드시 순천 도시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현재 철도는 시민들의 공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흥타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우리는 순천시 24개 읍면동 주민자치 대표 조직으로서 순천시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는 현재의 경전선 노선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총회에서 시민들의 의지를 담아 순천 발전을 역행하는 경전선 사업 반대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 광양시,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 농지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 변경신청

광양시는 「농지법령」 개정으로 오는 18일부터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농지 이용정보 변경 사유 발생 시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이용 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을 설치하는 경

우 ▲농축산물 생산시설(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농막)을 설치하는 경우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 원, 2차 위반 시 3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고흥군-(주)자연터, 스마트팜 원예농산물

### 납품·유통 상생 협약...판로 개척 대전환기

고흥군은 농식품 융복합산업(6차산업)을 실현하는 농업회사법인(주)자연터와 '고흥 스마트팜 원예농산물 납품·유통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자연터는 국내 최초로 칼라대추방울토마토를 개발하여 국내 대형마트 및 온라인플랫폼에 납품 중이며, 1·2차 산업인 생산·가공과 3차 산업인 도시 체험형 로컬푸드마켓 운영 등 경기도 고양시에서 농촌 융복합산업(6차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공영민 군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완공되면 이후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가능해 농산물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판로 확보와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이 우리군 원예농산물 판로 개척의 대전환기가 될 것을 희



망한다"고 말했다.

(주)자연터 박인호 대표는 "이번 협약은 고흥군이 판로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타 지역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모범이 될 것이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청년 창업농들의 조기 정착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여수 벼룩시장, 9월 3일 거북선공원에서 '개장'

소통과 나눔의 직거래장터, '여수 벼룩시장'이 다음달 3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여수 거북선공원에서 개최된다.

판매 품목은 의류, 도서, 잡화, 가전제품 등 일반 생활용품으로 가격은 판매자가 임의로 책정한다. 단, 새 제품이나 약품류 등 벼룩시장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물품은 판매

품목에서 제외된다.

여수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판매 참가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수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https://ok.yeosu.go.kr/>) 또는 지역경제과(☎061-659-3606)로 신청하면 된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전통놀이, 캘리그래피

체험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돼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 벼룩시장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고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여수 벼룩시장은 9월부터 11월 까지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총 3회에 걸쳐 거북선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수=기동취재본부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